

지역 소식통



고창군 희성농장, 슈퍼 포도 수확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000송이의 포도가 열리는 고창군 성성면 희성농장의 슈퍼 포도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다.

희성농장 도덕현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 식재한 13년생 포도는 매년 최대 착과기록을 갱신해 왔으며 올해 4000송이 수확을 앞두고 있다.

이 나무 1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은 1000㎡에 이르며, 지금까지 일본에서 3000송이 세계 기네스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지만 1그루에 4000송이가 열리는 것은 알려지지 않아서 비공인 세계 기네스인 셈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경찰, 화물차량 불법행위 단속

부안경찰서가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방지하기 위해 덤프 등 화물차량 불법행위에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지난 25일부터 동진면 고마재 삼거리 등 화물차의 교통량이 많은 국도상에서 홍보와 단속을 연중 실시하며 과속, 난폭운전,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대형차량의 과속과 난폭운전 및 불법개조·과적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으로 특히 과적이나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없앨 방침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소방서, 내변산 내 소사 입구 등산로 안전 지킴이 운영

가을철 산행객이 집중 되는 시기를 맞아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가 내변산 내 소사 입구 일원에서 산악사고 예방관리 및 긴급구조 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등산 목 안전 지킴이를 운영한다.

산악긴급구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등산목 안전 지킴이는 다음달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내변산 내 소사 입구에서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한다.

등산 목 안전 지킴이는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과 응급을 처치하며 등산로 입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등산객을 위하여 혈압 및 혈당측정 서비스도 실시한다. /부안=이옥수 기자

서남권추모공원 벤치마킹 발길

명품 장사시설 자리매김... 함양군의회 의원들 방문 '찬사' 이어져

서남권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 명품 장사시설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전국에서 벤치마킹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 함양군의회 의원 10명(의장 임재구)이 선진 장사시설 자료수집과 현장 견학 일환으로 추모공원을 찾았다.

함양군의회의 이번 방문은 공설 함양군이 자연장지 조성추진 중인데 따른 것이다. 의원들은 이날 추모공원의 부지선정에서부터 건립과정, 준공, 성공적인 시설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듣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쾌적한 환경과 잘 갖춰진 시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함양군은 지역 내에 화장장이 없어 인근 지역인 진주시와 사천시 등으로 원장화장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화장장 건립 또한 시급한 실정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군은 정읍과 고창, 부안, 김제 4개 시군이 공동협력사업으로 건립, 운영 중인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장을 모델로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성공적인 자치단체협력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남권추모공원은 지난



서남권추모공원이 명품 장사시설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전국에서 벤치마킹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11월 개원했다. 지자체 간 공동협업과 예산효율화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그간 여러 차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감곡면 4만여㎡에 조성된 추모공원은 광역공설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유족동산 등 종합장사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원에서 8월 20일 현재까지 화장장 9324기, 봉안당 2604기, 자연장지는 1258기에 달하고 있다.

개원 이후 서남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획기적인 장사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정읍과 고창, 부안, 김제시가 공동으로 참여해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서남권 주민들의 건당 화장비용은 7만원이다. 추모공원 개원 전에는 전주와 전남 광주, 충청도 세종 시까지 원장화장을 할 경우 지금의 비용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천일염 곱소금빛소금 전국서 '인기'

해독작용·인체 노폐물 분해 등에 탁월한 효능 보여

동쪽이나 서쪽의 황토 언덕 양지바른 산등성이에서 태양광선을 비추시 켜둔 황토를 파고 들어가면 푸른색의 때 같은 것이 지장대 밑의 황토를 파내 오염되지 않은 물을 황토와 섞어 저온 후 하루 반 정도 지나면 엷은 막으로 된 황토색 물이 뜨는데 이 물이 바로 황토 지장수이다.

바닷물을 정화해 황토와 송화가루 등 다수의 천연 미네랄을 혼합해 장시간 숙성해 만든 바닷물을 말려버린 이를 활용해 만든 소금이 바로 곱소금빛소금의 해수 황토 지장수 소금이다.

곱소금빛소금은 해수 황토 지장수를 이용한 고품질 천일염과 구운 소금을 생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위치한 곱소금빛소금(대표 배중수)이다.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해수 황토 지장수로 고품질 천일염과 구운 소금을 생산해 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약을 달이거나 차를 끓이면 지장수에 녹아있는 각종 효소 및 미네랄, 원적외선 등이 약이나 차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하며 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 불순물 제거 등의 산성체질로 변한 인체세포를 해독해 중화시키는 해독작용이 탁월하다.

여기에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도 먹을 수 있고 배추김치를 담그면 오래 두어도 배추가 물러지지 않아 배추의 아삭한 맛과 고기나 생선을 구워 먹을 때 해수 황토 지장수 구운 소금을 살짝 뿌리면 고기나 생선 특유의 냄새를 막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

배중수 대표는 "해수 황토 지장수 소금은 황토 지장수가 갖고 있는 효



곱소금빛소금은 해독작용과 인체 노폐물 분해 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해수 황토 지장수로 고품질 천일염과 구운 소금을 생산해 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능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몸에 좋은 안전한 먹거리"라며 "일반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힘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도 섭취할 수 있어 전 국민이 아무런 걱정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의 스타 오디션 '메이플스타'

10월 22일 저녁 7시... 정읍공원 개최

단풍의 고장 정읍에서 최초의 지자체 오디션이 열린다.

시는 오는 10월 22일 저녁 7시 정읍공원 특설무대에서 스타오디션 페스티벌인 '제1회 메이플스타(이하 메이플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메이플스타는 K-POP 부문(춤, 노래), 개그 부문, 연기 부문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K-스타 방송과 연계해 최종 우승자에게는 디지털싱글앨범 발매와 K-STAR 뮤직프로그램 출연 기회를 제공한다.

그간 일부 지방에서 노래 자랑대회 등이 있었지만 각 분야별 오디션 형식을 취한 것은 메이플스타가 최초이다.

각 지역에서 선정된 200팀의 청소년들이 즐기고 도전할 수 있는 페스티벌 형식의 경연으로, 참여자는 물론 관람객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축제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첨단 방식들을 사용하는 고품격 오디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고유의 QR코드를 활용한다.

이번 오디션 고유의 QR코드를 통해 앱을 다운받는 형식이다. 콘텐츠 유통과 시청하기, 투표하기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청소년들의 니드(NEED)를 충족시켜 참여를 대폭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다채널 서라운드 음향인 10.2 채널 시스템으로 음악을 녹음한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이 어떤 기기로 들든 폭 넓은 서라운드 음향을 접할 수 있도록 있게 됐다.

신청자 접수는 메이플스타 홈페이지(www.maplestar.kr)를 통해 이달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1차 접수한다. 참가비는 1인 당 1만원이다. 참가 자격은 전국 청소년(만 9세에서 24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차 예선은 10월 7일까지 홈페이지에 접수된 동영상 자료 심사를 통해 200팀을 선발한다. 2차 예선은 12일부터 13일까지 1차 예선 통과자 200팀을 대상으로 연이어 트홀에서 실시되는데, 모두 30팀을 선발한다.

이후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정읍학생수련원에서 2차 예선 통과자 30팀이 합숙트레이닝을 갖고 본선(10월 22일) 무대에 오른다. 세부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899-1496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조례 제정 나서

고창군이 저출산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정에 나섰다 29일 밝혔다.

고창군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귀농·귀촌 정책시행,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꾸준히 증가했으나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자연 인구감소 급증과 대도시로의 진출 등으로 올 8월 말 현재 5만8000명 성까지 크게 감소했다.

군은 인구 6만 명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발굴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추진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군은 저출산 관련 시책계획 및 인구영향평가 수립과 관련해 이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조례를 담아, 타 지자체와는 차별적인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해 근본적인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전입자와 기존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고창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인구절벽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갖고 인구절벽으로 가져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및 투자의 위축, 이에 따른 제조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발생에 따라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여 우리 미래세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을 모든 군민이 인식 하도록 해 인구절벽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